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7호 [루게 제24590호] 주제 103(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전 당, 전 군, 전 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백 년 속 적 미 제와 역 적 패 당 을 쓸 어 버 리 고 최 후 승 리 를 이 룩 하 자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날강도 미제가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터 64년이 되는 날을 맞으며 온 나라 천만민민의 원수적멸의 기상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가 2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세기와 년대를 이어 우리 민족에게 천추의 피맺힌 한을 남긴 미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안고 모여온 10만여명의 군중들로 차넘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를 비롯한 구호관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성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매를 보여주자!》, 《조국통일》, 《최후승리》 등의 구호들과 글발들,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가 광장주변건물들에 드리워져 있었다.

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 국제기구대표들과 대사관, 무관단성원들, 외국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봉해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와 김용진, 리무영, 김덕훈내각부총리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차회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민민은 64년전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과 불행의 늪을 미제와 남조선피괴당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국을 실현하려는 야망에 현대적무기로 장로!》,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를 비롯한 구호관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위물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같이 밀려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미제는 결코 굴복시킬수 없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옹당한 교훈을 찾은 대신 미제는 오늘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흉심에 새 전쟁도발 책동에 미쳐날뛰고 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약탈하게 끌고들며 제제와 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으며 남조선피괴들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점점으로 몰아가고 있다.

력사와 현실은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환근

이며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백년속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연설자는 모두가 세기를 이어오며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위대한 선군의 기지를 높이고 영원히 승리만을 쫓아갈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는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천경만경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결사옹위하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도 경에하는 원수님과 생산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당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위협한 클이라도 건드린다면 다지고다져온 선군의 위력과 쌓이고쌓인 분노를 활화산처럼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326

전선공장 로동자 김혁남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로동계급의 가슴마다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멸적의 의지로 피를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가 저지른 만행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지울수도 보상할수 없는 천추에 용납 못할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특대형범죄, 허를 찌르고 영원히 인류에게 저지른 몹시리치는 죄악을 통가하는 극악무도한 국제적범죄이라고 규탄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들이친 미제가 또다시 이 땅에 침략과 살륙, 파괴의 불을 지르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피괴당은 남조선에 핵전쟁장비들과 타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북침전쟁을 판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고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와 친핵적무리들이 끝끝내 북침전쟁의 불길을 터뜨린다면 우리 로동계급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인민군대와 함께 어깨걸고 침략자들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박멸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로동계급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당의 새로운 명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방공업을 튼튼히 다지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열풍을 세계에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따라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선군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본매를 남김없이 떨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동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화숙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는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침략자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피괴당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멸적의 복수심을 다시금 천백배로 가다들고있다고 말하였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잊을래야 잊을수 없고 가슴속에 복수의 일념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는것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야수들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극악무도한 만행이라고 말하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땅의 주인이 되어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이며 애국의 땅을 바쳐가던 순박한 우리 농민들을 괴어 주린 미제살인마들이 무참하게 학살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미제의 침략적, 살인귀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북침책전정도발과 반공화국제제책동에 매달리는 원수들과는 오직 총대로 최후결판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전화의 날 위대한 수령님을 충정으로 받들고 결사옹위하였던 재래나무리들의 김제원 농민처럼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쌀로써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 농민영웅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할한날의 날알을 침략자들의 가슴에 맞구멍을 내는 멸적의 총

란으로 여기고 알곡증산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 이 땅에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인민군대와 한전호에 서서 귀중한 이 땅을 목숨바쳐 지키며 침략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불마당질해버리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홍강민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청년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해야 할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이친 악마의 무리, 두발 가진 승냥이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맞은지도 60여년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와 피괴호전광들의 대결망치는 날을 따라 더욱 로골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의 계승자, 복수자의 세대인 우리 청년학생들이 세기를 이어 쌓이고쌓인 증오와 원한을 가슴후련하게 터쳐 미제와 그 주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여 부모형제들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청년들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전화의 청년영웅들처럼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어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 청년전위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500만 청년전위들은 서러발치는 선군총대를 어깨에 틀어쥐고 미제와 피괴역적패당의 무모한 북침전쟁소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화악에 불이

달린것처럼 최후결사전에 용약 달려나가 전쟁미치광이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죽여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역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되어 선군조선의 변혁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청년들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에 세계가 우리러 보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는데서 선군청년전위의 기개와 본매를 남김없이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명예를 결코 조국수호에 결연히 떨치나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길 천만민민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구호들을 힘차게 불렀다.

대회는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러 준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자!》,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띄어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힘찬 취주악에 맞추어 광장을 누비나갔다.

그들의 열광마다에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침략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미제양키들과 동족대결에 환강이 된 박근혜역적무리들을 이 하늘아래에서 씨도 없이 강그리 소탕해버릴 원수적멸의 기상이 서리발쳤다.

2 면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복수결의모임, 실탄사격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는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의 원수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보복의지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원수들과는 오직 총대로 무자비하게 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땅 신천이 남긴 피의 교훈이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과 피혁적적대당들이 저지른 만고의 죄행을 절대로 잊지 않고 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복수결의모임이 25일 신천박물판 사백여미리, 백돌어린이묘앞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에는 미제의 피로 얼룩진 죄악의 역사와 야수적대행에 지긋는 격분을 금치 못하며 반미치후 대결전으로 민족이 흘린 피값을 받

드시 받아내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의 원수격멸의 기상이 차넘치고 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라고 쓴 구호판이 모임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고 원수들을 친백배로 복수하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과 혁명학원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사백여미리묘와 백돌어린이묘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그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모임은 《미제에게 죽음을》노래

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선동시 《신천은 복수를 기다린다》에 출연한 사관들인 한정혁, 김성진, 천리향, 윤정심은 우리 백두산총대는 언제까지나 신천의 영혼들앞에 추모의 꽃다발을 놓을수 없다고 토로하면서 신천은 친백배의 복수를 기다리고있다고 소리높이 외쳤다.

죽음의 화약창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신천박물판 강사 주상원과 신천군 읍 52인민반 리인화자는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을 한시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원수들이 로동당원들과 모범농민들을 비롯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빨강이는 씨를 말리워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염미를 애라게 찾으며 고사리같은 손으로 창고벽을 허비는 아이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며 너털웃음을 치던 살인마들의 낮찍을 죽여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신천땅의 피의 원한을 친백배로 갚아줄것을 인민군군인들에게 절절히 당부하였다.

사관 리충렬은 《미제는 인두검을 쓴 승냥이》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밤나무끝에 달려서 살인마들이 대를과 줄칼 등 흉기로 어머니의 두팔을 자르고 품에서 빼앗아낸 어리애를 사나운 군견들의 먹이감으로 내동댕이친 그날의 참상만행을 까밝히면서 아메리카식인종들을 씨종자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복수의 맹세를 다지거었다.

구연 《계급적원수들의 <약속>에 출연한 사관 안지향은 적들의 침략린 <약속>에 속히워 생죽음, 머저리 죽음을 당한 한 농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교활하고

악랄한 계급적원수들과의 <약속>이란 있을수 없으며 원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사관 최항미는 백두의 칼바람으로 버려져진 복수의 총창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적들이 움쩍만 한다면 놈들의 시체를 물어뜯는 놈도 없이 신천땅의 피값을 몇천, 몇만배로 기어어 받아내고야말 결의를 표명하였다.

군관 최항미는 최전연초소들을 찾고찾으며 우리 병사들에게 사랑과 믿음,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는 오늘의 빨치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반제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를 만장란한 백두산총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교활하고

총대는 선언한다》가 신천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모임은 끝났다.

이어 참가자들은 신천박물판을 돌아보았다.

인민군군인들은 산 사람의 머리를 툼으로 쾨고 도기로 쾨고 이마에 대못을 박는 등 귀족같은 살륙만행에 사용된 흉기들과 사자자료들을 보면서 미제야말로 인간의 말을 쓴 야수의 무리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이날 피비린 학살만행의 증견자, 역사의 고발장인 신천땅에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실탄사격이 있었다.

사격장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쓰디쓴 참패를 망각하고 제2의 조선전쟁도발책동에 환장인 된 미제와 역적패당을 영영 쓸어버릴 인민군군인들의 역세 기사과

보복일념으로 세차게 뛰어버지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만장약된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린 인민군군인들이 구렁에 따라 일제히 화선을 차지하였다.

침략과 살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단방에 요정내는 심정으로 군인들은 백두산훈련열풍, 명사수운동의 불길속에 다져온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멸적의 명증탄을 날리고 또 날리었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복수결의모임과 실탄사격은 무모한 핵전쟁광기를 부리며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가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으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백두산혁명강군의 철의 의지를 다시한번 뚜렷이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백년숙적 미제와 역적패당을 쓸어버리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1 면에서 계속

시위대오마다에 수풀처럼 솟은 《미제는 조선의 국력을 특마

로 보라!》, 《조선의 대답》, 《병진로선》, 《날강도 미제에게 죽음을!》 등의 선전화들과 손구호들에는 불굴의 정신력과 무적의 총대를 다 갖춘 정의의 수호

자답게 자기 수명,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목숨바쳐 사수해갈 철천지원수의 의지가 어러있었다.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적사상공세의 힘찬 포성으로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선군조선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인양 《미제가 더럽는다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

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등의 합성이 팽창에 메아리쳤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그 어떤 악랄한 책동에도 끄떡없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파갈히 싸워나갈 우리 인민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부르는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 《지난날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이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것은 조국이 그렇게 귀중하였기때문입니다.》

### 김정일

##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 영웅의 녀은 오늘도 살아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설장에 베풀 한장을 고여도 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고마운 조국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운 그것에 미처가 우리 조국명예 건국의 불을 질렀을 때 혁명의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갈것을 탄원하였다.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 주며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주는 리수복영웅의 시는 이렇듯 준엄한 격전을 앞두고 씌어졌다. 생의 마지막순간 그는 적의 불구멍을 피하는 가슴으로 막으며 힘차게 헤쳐냈다. 《동무들! 돌격앞으로! 김일성장군 만세!》

한 인민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의 모습과 그가 남긴 시를 담은 그림판앞에서 아무리 유명한 시인도 리수복영웅의 시와 같이 훌륭한 글은 쓸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1951년 10월 리수복분대장이 속한 중대는 1211고지와 통선으로 잇닿아있는 무명고지를 점령할때 대한 전투명령을 받았다. 결전을 앞두고 포연이 자욱한 고지의 전초에서 공개담소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중대민청부위원장인 리수복분대장은 이런 맹세를 엄숙하게 다지었다. 《나 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들의 명령을 끝까지 실천하여 장군님의 전사된 영예를 빛내어주시라.》

주제 4 7 (1958)년 9월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 영웅의 고향집을 찾아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웅이 낳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주제 4 7 (1958)년 4월 영웅의 묘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수복영웅을 잊지 못하고있다. 백두산을 주름잡으시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벌벌 떨게 하신 백두산의 김대장을 소리높이 노래한 시,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높이 칭송한 그 시를 마음속에 새겨안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였고 새 조국건설을 위한 일에 아낌없이 힘을 바치었다. 글 한자를 쓰고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그리고 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속에서 자기가 세운 새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웠습니다.》

우리앞에 투쟁의 편지가 있다. 하나는 불타는 고지에서 한 조선인민군 전사가 1951년 새해를 맞고 고향에 보낸 편지이다.

《아버지! 승리의 새해를 축하합니다. ... 저는 전우들과 함께 적을 무찔러 앞으로 진격을 계속하면서 필승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전초에서 <남부끄럽지 않게 나라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라!> 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적들이 반동격하여 왔을 때 저는 번개같이 달려나가 총창으로 단번에 열놈이나 거꾸러뜨렸습니다.

앞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적이면 그 수가 얼마인건 눈들에게 보지 않으려 하며 더욱 몸을 바쳐 육박전으로 찢어죽이겠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해어질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침략침략 미제를 친배로 복수하고 야만 불타는 적개성을 안고 우리는 참관자들을 함께 중앙계급교양반반미교양반의 전시장에 대한 참관을 계속하였다.

강사는 전시장의 자료들을 가리키며 미제가 남조선에 강점하고 저들의 식민지배체제를 확립한 다음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준비를 더욱 미친듯이 다그치며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미제는 항권지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우리 공화국을 요망하기에 앞섰고 전조선의 자들의 식민지로, 침략전진기까지로 만들려는 흉악한 기도에도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약탈스럽게 달려들었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더욱 용감하고 대담했습니다. ...》

또 한통의 편지는 1950년 11월에 만포군 고산면 남상리(당시)의 한 녀인이 전선에서 싸우는 둘째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영아! 나는 네가 이 시각에도 그 마귀같은 미국놈들과 총부리를 겨

## 수필

### 전선과 후방으로 오고간 편지

누고 용감히 싸우고있으리라고 믿는다. 밭살스러운 미군비행기들이 지난 열여덟날 산간벽지인 우리 남상리를 폭격하여 딱지네이리와 여러 집을 불살랐었다. 나는 그들의 비행기를 볼 때마다 이가 갈리어 못 견딜 지경이다. 며칠전에 인민군대가 고사포로 미군비행기를 떨어뜨리는것을 보고 어쩌나 마음이 시원하더니 막 손뼉을 쳤다. 너의 형 인영아도 미군놈들을 모조리 내몰아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나는 너희들을 인민군대에

보낸 영예를 한아름 안고 아무런 걱정없이 힘차게 살아가고있다.

올해농사도 잘되어 장배이현 물세만도 지난해보다 다섯가마나 더 바쳤고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애국미 열가마를 헌납하였었다.

얼마전 전선으로 출동하는 인민군대들이 우리 집에서 하루밤

소박한 병사의 편지, 후방의 한 어머니의 글썩이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충격의 파문을 일으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무릇 편지에는 가지가지의 사사로운 감정들과 남모르는 사연들, 개인적인 부탁들이 담진다. 하지만 그들은 엄숙한 전쟁의 시련속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결코 자기들이 겪는 애로와 난관

게는 자기 자신의 생명, 피를 나는 부모형제들의 생사보다도 조국의 한치 땅,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가 더 귀중하였는가.

그것은 그들모두가 나라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도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새 조선의 산아들이었기때문이다. 그들의 기쁨과 행복, 슬픔과 아픔은 바로 조국의 생사운명과 혈맥처럼 이어졌기때문이다.

그렇다. 가련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속심도 타산도 각각인 오합지졸의 고용병무리가 단 한발 포탄의 작렬에도 산산이 흩어질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바로 이런 하나의 조국경사수의 의지로 철통같이 뭉치었으며 침략자들과의 판가리결전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었다.

전선과 후방으로 오고간 편지! 이 소박한 편지들에 1950년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전승의 비결이 비껴있다.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앞둔 이 땅에서 군대와 인민의 편지는 오늘도 조국보위초소에서 일터와 마을로, 일터와 마을에서 조국보위초소로 끊임없이 오고간다. 영원한 승리의 진리를 담고,

본사기자 허 명숙

## 침략전쟁의 도발자 미제 중앙계급교양반을 찾아서 (3)

미제에 의하여 일어난 수많은 무장도발사건을 보여주는 사진자료 앞에서 결음을 멈추었다. 강사는 격분을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미제의 지시에 따라 피뢰군놈들은 1947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무려 수천회의 무장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미제가 남조선에 쏘아부른 막대한 군사원조액수와 남조선도처에 대대적으로 꾸러놓은 군사시설들, 미제가 항구들에 군사기체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사진과 침략전쟁의 대표적으로써 남조선피뢰군의 전투훈련을 지휘감독하는 미제침략자들의 더러운 물골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앞에서 참관자들은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

들의 침략적행위를 감추기 위한 고위공직자들의 《휴양》 놀음, 트루먼의 미주리주 《여행》 등 침략전쟁의 불을 달 시각을 기다리는 미제의 교활성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을 중요한 눈길로 바라보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에서의 침략전쟁준비는 수많은 미제전쟁미치광이의 현저지휘에 의해 더욱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전쟁사환군 전례를 남조선에 파견하여 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였습다.》

1950년 6월 델레스는 화려한 외교사절의 명맥을 걸고 38° 선에 기여나와 공권지지 차지정형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피뢰국에까지 나타내서 《북침》 명령을 하였다. 이놈은 여기에서 만약 2주일만 견디어내면 그동안에 북조선이 남조선을 먼저 공격했다고 유엔에 제소함으로써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북해공군을 동원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을 떠나기 앞서 델레스는 리승만에게 전보문을 주었는데 그것은 6월 25일에 리승만의 이름과 《유엔조선위원단》의 이름으로 유엔에 《제소》된 조선전쟁에 관한 전보문의 원문이었다.

6월 25일을 택하게 되는가.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이다. 《미군사교문단장 로버트》

이렇게 미제는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의 이른 새벽 4시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전시장의 많은 자료들은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해어질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 조선전쟁의 도발자, 조선인민의 침략침략수괴였음을 새삼스럽게 날이 고백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사에서 교훈을 찾으며 대신 우리 공화국을 기어아 입살해보려고 무장도발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해왔으며 지금도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침략무력을 증강하면서 호시탐탐 제 2조선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강위력한 공군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나라로 위용떨치고있다. 경에 하러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으로 다지고다진 북수의 총대로 적들이 움푹히만 하더라도 순간에 적진을 아예 벌초하며 항복을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할것이라는 확신이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굳이 자리잡았다. 글 본사기자 조 경철 사진 본사기자 신 승희

##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선으로 탄원하는 청년들



전선생산을 다그치는 로동자들 - 싸우는 고지에 더 많은 탄약을!

## 신선박물관 강사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신선박물관은 III제와 계급원수들의 귀족같은 만행들 보여 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교감장이다.》

신선으로! 신선으로! 철천지원수 미제에 대한 복수심으로 피끓는 심장들이 앞을 닦고서 원한의 신선함을 닦고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 참관자들의 대오는 6. 25-7. 27반미공동투쟁기간에는 하루평균 5천여명에 달한다. 《나날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신선박물관의 강사들이다.》

하루 보통 5~6회 강사들, 따뜻한 그들의 강사복은 미처 마를새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매년 수많은 참관자들을 맞이하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 바쁜 속에서도 그들은 시간을 쪼개가며 자료 학습, 기량발표회, 집체 및 개별강의참관 등을 진행하며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단단히 밀고나가고있다.

연제인가 강사생활의 첫걸음을 맨 김정일동무는 교양과장 박영숙동무에게 18살 꽃나이

부러 수선년세월 강사로 변함없이 일해온 비결을 물은적이 있었다. 그대 박영숙동무는 생각깊은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언제 한번 이곳을 평범한 일터로 여겨볼수가 없어요. 원수의 총구는 보이지 않아도 치열한 계급투쟁의 전초선이 아니겠어요. 우리 강사들은 바로 그 초소의 초병들이예요.》

이것은 박영숙동무만이 아닌 신선박물관의 강사들 누구나 간직하고 사는 마음이다. 하기에 그들은 매식을 건넬때도 마이크를 들고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같이도 강의를 중단하지 않았던것이다. 《내가 원수들의 모진 교문과 악형속에서도 선념과 지조를 못 지키지 않을수 있었던 신선박관에서 다졌던 북수의 맹세를 한 시도 잊지 않은데도 있었다.》

신선박물관이 건립되어 오늘까지 근 17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선함을 찾았다. 뿐만아니라 422만 5465명이 신선박물관 강사들의 이등강의를 받았다. 그 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념의 강사, 의지의 강사로 자리잡았는가. 이런 정신력의 강사들과 맞설 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의 총대가 굳건하고 우리의 계급전지가 철옹성같은것은 바로 이런 미더운 강사들이 우리 당사상전선을 지켜서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리 경일



#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의 역사적교훈을 망각하지 말라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구국전쟁》인턴네트에서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24일 《침략과 전쟁의 원흉 미국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토문을 발표하였다.

## 침략과 전쟁의 원흉 미국을 규탄한다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성토문 발표

6.25전쟁이 발발된지도 어느덧 64년이 되었다. 미국이 철두철미 저들의 리익을 추구하여 도발한 6.25전쟁은 강도적인 침략전쟁, 반민족적인 내침략전쟁이었다. 6.25전쟁은 지금도 우리 민족에게 국토분단과 더불어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성토문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이 발발된지도 어느덧 64년이 되었다. 미국이 철두철미 저들의 리익을 추구하여 도발한 6.25전쟁은 강도적인 침략전쟁, 반민족적인 내침략전쟁이었다. 6.25전쟁은 지금도 우리 민족에게 국토분단과 더불어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는 침략자에 의한 전쟁과 살육이 밤이 되고 패전이 《승리》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은 6.25를 《북에 의한 남침도발》로 매도하면서 전쟁대포만으로 끌어들이던 추종국들을 초청하여 《기념식》이요 뉘우 하는 광대극을 벌여놓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서슴치 않고있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책동을 력사에 대한 부정과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새 전쟁도발을 위한 또 하나의 전구름으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들을 강력히 단죄하여 이 성토문을 발표한다.

##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의 반향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은 침략과 약탈을 일삼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조선전쟁의 도발자 미제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방문단성원 현우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천박물관을 참관하고 뿜어오는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격적인 실시추진시기 신천박물에서 거행되는 평화적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원수들은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총으로 쏘아죽이다 못해 각종, 최후통첩, 대못 등으로 무참히 살해하였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자료들과 살인흉기들은 양키들은 대대적으로 대항하여 투쟁을 벌여주고있다. 미제는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러는것을 력사의 땅 신천에서 다시금 깊이 새기겠다. 미제침략군의 몸서리치는 만행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우리는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였다. 방문단성원 정귀준은 이렇게 방로하였다. 미제는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 파괴행위로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요람같이 아낀다고 하였지만 조국수호의 결사항전에 산악이 일떠선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키질수 없었다. 우리 인민은 불사신처럼 일어

가 아니라 오늘로 되고있다. 국민들이여, 겨여!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는데 민족의 사활이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두다 반전평화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라! 평화는 오직 투쟁으로써만 쟁취할수 있다. 민족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 이 땅의 평화를 제천으로 지키자! 국민모두가 침략과 전쟁의 무리인 추악한행위를 철학적외세에 아무 굴종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며 미군의 들것대로 전쟁총을 추어대는 회대의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집단이다. 평화와 제창하는 《신뢰》와 《통일대박》론은 추악한 사대매국적, 호전적 특성을 가리우고자 하는 궤변이며 뒤집어놓는 대결론, 정쟁론이다. 국민에 대한 악정, 학정으로 대형참사를 끌어온것도 모자라 미국의 전쟁사관군이 되어 민중전멸, 민족공멸을 추구하는 백관들을 비롯한 역적배당원 단호히 심판하자!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는 침략자에 의한 전쟁과 살육이 밤이 되고 패전이 《승리》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은 6.25를 《북에 의한 남침도발》로 매도하면서 전쟁대포만으로 끌어들이던 추종국들을 초청하여 《기념식》이요 뉘우 하는 광대극을 벌여놓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서슴치 않고있다. 이것은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6.25전쟁의 도발자, 침략자이다.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세계제패의 요새로 여기고 지배를 꿈꾸어 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자》, 《원조자》로 자처하며 이남을 불법

강점하였다. 미국인들 자신이 《북을 반대하는 월가의 전쟁은 그의 장군들이 이남에 발을 들이던 바로 그 순간인 1945년 9월에 시작되었다.》고 증언한바와 같이 미제침략군의 인헌상륙은 곧 전쟁의 씨앗이었다. 피골은 근화발을 찍은 첫날부터 이 땅을 북침전초기, 출발전지로서 만드는 데 피눈이 된 미제는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1억 1000만USS에 달하는 무장장비 및 군수물자를 투입하여 《국군》을 무장시켰다. 그리고 6.25전쟁의 서막으로서 《국군》을 38° 선에서의 무장도발로 적극 부추겼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 사진을 통해 본 조선전쟁방화법

### 《북벌》작전계획 작성

첫번째 사진은 《북벌》계획작성에 열을 올리는 미군사교관단들과 포피우두머리들의 머리 눈 낮추는 장면이다. 리승만친미피괴정권을 조악한 미제는 침략전쟁수행의 동격대역할을 늘려 할 피괴군을 편성확장하고 미군사교관들을 파견하여 군사훈련과 작전지휘를 맡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 조성하는 한편 침공준비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북벌》계획을 작성 완성하였다.

침략전쟁준비를 끝낸 미제 침략자들은 1950년 2월 에 리승만연도도를 도교에 있는 미군통신사령부에 불러다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할때 대한 11개 조항의 전쟁헌령을 주었으며 같은 해 5월에 전쟁미치광이들에게 조선전쟁도발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도록 위촉하였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 조성하는 한편 침공준비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북벌》계획을 작성 완성하였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6.25전쟁 도발은 전추에 용납 못할 대범죄이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답화

미국과 리승만괴뢰당이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터 64년이 되었다. 첫초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 에 알뜰하게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가 도발한 지난 조선전쟁은 조선민족에 대한 대침략전쟁을 감행하고 조선반도를 초토화한 가장 야만적이고 파피적인 전쟁이었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우악한 침략자,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진상을 의곡하며 반공화국내결과 전쟁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과 현 보수당국의 흉심으로부터 출발한 반민족적, 반력사적행위로서 주요도 폭과, 용납될 수 없다.